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대인문제해결양식과의 관계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김해숙

2012년 8월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대인문제해결양식과의 관계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

지도교수 송 재 홍

김 해 숙

이 논문을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8월

김해숙의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2012년 8월

The Mediating Effect of Optimism on the
Relation between Children's Perceived
Parental Rearing Attitude and
Interpersonal Problem-Solving Styles

Kim, Hae Sook

(Supervised by professor Song, Jae Ho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Education.

Department of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2012. 8.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문제	3
3. 용어의 정의.....	4
1) 부모양육태도	4
2) 낙관성	4
3) 대인문제해결양식	5
II. 이론적 배경	6
1. 대인문제해결양식.....	6
1) 아동의 대인문제해결.....	6
2) 대인문제해결양식의 이론적 모형.....	7
2. 부모양육태도	11
1) 양육태도의 개념.....	11
2) 양육태도의 유형.....	12
3. 낙관성.....	14
1) 낙관성의 개념 및 특성.....	14
2) 낙관성의 발달.....	16
4. 부모양육태도 및 낙관성과 대인문제해결양식과의 관계.....	17
1) 부모양육태도와 낙관성	17
2) 부모양육태도와 대인문제해결양식.....	18
3) 낙관성과 대인문제해결양식.....	19
4) 부모양육태도 및 낙관성과 대인문제해결양식	20

III.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22
1. 연구모형	22
2. 연구가설	23
IV. 연구방법	24
1. 연구대상	24
2. 측정도구	25
1) 부모양육태도 지각 척도.....	25
2) 아동용 성향적 낙관성 척도.....	26
3) 대인문제해결양식 척도.....	27
3. 통계분석	28
V. 연구결과	30
1. 부모양육태도 및 낙관성과 대인문제해결양식과의 상관관계.....	30
2. 부모양육태도가 대인문제해결양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낙관성의 매개효과.....	31
1) 연구모형 검증.....	32
2) 경쟁모형 검증 및 최적모형 선택.....	33
3) 낙관성의 매개효과	36
VI. 논의 및 결론.....	38
1. 논의.....	38
2. 결론 및 제언.....	40
참고문헌	42
Abstract.....	48
부록	51

표 목 차

<표 II-1> 주장적 행동, 소극적 행동, 공격적 행동의 특징별 비교.....	10
<표 IV-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분포 (n=367)	24
<표 IV-2> 부모양육태도 지각 척도의 하위유형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25
<표 IV-3> 아동용 성향적 낙관성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26
<표 IV-4> 대인문제해결양식 척도의 구성과 문항별 응답유형.....	27
<표 IV-5> 대인문제해결전략 척도 문항 예시.....	28
<표 V-1> 측정변수의 상관관계.....	30
<표 V-2>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32
<표 V-3>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의 경로계수 및 유의도 검증.....	33
<표 V-4> 연구모형(부분매개)과 경쟁모형(완전매개)의 비교.....	34
<표 V-5> 경쟁모형(완전매개모형)의 경로계수 및 유의도 검증	35
<표 V-6>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36

그 립 목 차

[그림 III-1] 연구모형(부분매개).....	22
[그림 III-2] 경쟁모형(완전매개).....	23
[그림 V-1]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의 경로도.....	33
[그림 V-2] 경쟁모형(완전경쟁모형)의 경로도.....	35
[그림 V-3] Sobel Test 모형.....	37

【국문초록】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대인문제해결양식과의
관계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

김 해 숙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지도교수 송 재 흥

이 연구의 목적은 부모양육태도, 낙관성, 대인문제해결양식 간의 관계를 확인해보고 낙관성이 부모양육태도와 대인문제해결양식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낙관성, 대인문제해결양식 간에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는가?

둘째, 아동의 낙관성은 부모양육태도와 대인문제해결양식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지니는가?

이 연구에서는 제주도 소재 3개 초등학교의 4~6학년 학생들을 학년, 성별을 고려하여 임의 표집한 367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측정도구는 오성심과 이종승(1982)이 제작한 것을 임선화(1987)가 수정한 부모양육태도 지각척도, 김주용과 이지연(2008)이 제작한 아동용 성향적 낙관성 척도 그리고 황옥경(1997)이 제작한 대인문제해결양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4.0과 AMOS 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 결과에 기초해서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를 독립변인으로, 낙관

성을 매개변인으로, 그리고 대인문제해결양식은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으로는 부모양육태도, 낙관성, 대인문제해결양식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부모양육태도와 대인문제해결양식 간의 관계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채택하였다. 낙관성이 부분 매개효과를 보인다는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완전매개)을 설정하여 비교 검정하였으며, 낙관성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 검정(Sobel, 1982)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낙관성, 대인문제해결양식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인수록 낙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인문제해결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낙관성과 대인문제해결양식과도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둘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대인문제해결양식 간의 관계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 낙관성은 부모양육태도와 대인문제해결양식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Sobel 검정 결과, 낙관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및 낙관성은 대인문제해결양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양육태도가 아동의 대인문제해결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아동의 낙관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간과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아동의 대인문제해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양육태도라는 부모-자녀관계 요인과 아동의 낙관성이라는 개인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아동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특성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학령 후기 아동들의 원만한 대인문제해결을 위하여 긍정적인 부모양육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상담적 개입을 해야 하며, 나아가 낙관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효과적임을 말해주고 있다.

주요어 :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낙관성, 대인문제해결양식, 매개효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인간은 누구나 매순간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성인과 마찬가지로 아동도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누구나 이렇게 문제와 대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은 개인마다 다르다. 어떤 아동은 또래와의 문제에서 현명하게 문제를 잘 해결하는가 하면 어떤 아동은 문제해결에 실패하여 좌절하고 낙담할 수도 있다. 이렇듯 문제 상황을 긍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 필수적이며 중요한 요소이다.

아동기에 대인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은 또래에게 수용되지 못하는 등 부적응 행동이 나타난다. 이러한 부적응이 청소년기 후기나 성인기 초기까지 지속된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아동기의 긍정적인 대인문제해결 방식은 일생동안 개인의 심리적·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아동의 대인문제해결 행동은 실제적으로 원만한 사회적 적응과 관련되며 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은 무엇보다도 부모양육태도이다. 부모양육태도는 아동의 지적 발달과 함께 인성 등의 발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Spivack과 Shure(1972)는 부모양육태도는 아동이 실제적으로 대인적인 문제 장면에 부딪혔을 때, 아동이 사용하는 해결방안의 형태를 결정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이처럼 부모양육태도는 최초의 사회 문화적 환경요인으로서 아동의 사회성 및 성격 발달에 지속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아동의 대인문제해결양식을 부모양육태도와 관련지어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부모양육태도와 대인문제해결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대체적으로 부모와 가정으로부터 온정적·수용적 양육을 받으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자신감이 높아져 또래와도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이를 바탕

으로 대인문제해결능력이 보다 바람직하게 발달한다고 하였다(김은희, 2002; 손승희, 2001; 송은주, 2003).

이미란(2004)은 부모-자녀 관계는 타인과의 사회적 기초가 되고, 부모를 통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대와 가정을 형성하기 시작하여 사회적 관계에 필요한 능력을 발달시킨다고 하였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의 상호의존적인 특성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친구와의 갈등 및 대인문제해결 능력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대인문제해결 방식에서 부모양육태도가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관심을 받아온 변인이지만 대부분 부모양육태도와 대인문제해결능력과의 단일관계만을 연구하였다. Bandura(1986)는 인간의 행동, 환경 및 개인의 특성 등 세 가지 요인의 역동적 관련성에 의해서 행동이 결정된다는 상호결정론에 입각해 설명하고 있다. 즉, 개인의 행동만을 따로 분리해서 보지 않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간의 역동적 관련성에 주목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아동의 적응에는 가정환경과 같은 환경적 요인 외에도 아동 자신의 성격특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객관적으로 동일한 환경일지라도 개인의 지각에 따라 행동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인의 성격 특성중 하나로 최근 들어 낙관성이 개인의 적응과정 및 심리적 건강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안정적인 심리적 변인으로 연구되어져 오고 있다. 낙관성은 아동의 부적응이나 문제행동을 병리적 상태로 보았던 관점에서 벗어나, 개인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 성숙이라는 긍정적 측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김정수, 2008).

낙관성은 앞으로 발생하게 될 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 긍정적 혹은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을 말한다(Scheier & Caver, 1992). 또한 낙관성은 자신이 겪는 실패는 일시적인 것이며 역경에 맞서서 견뎌내며 다음 행동에 의해서 극복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낙관성은 부모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으로서 학습이 가능하고 한번 숙달되면 스스로 유지되는 속성이 있다(Seligman, 1991). 이에 낙관성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낙관성과 관련한 실험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순복(2007)은 낙관성 향상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낙관성, 자

아탄력성 및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했으며, 이선화(2007)는 낙관성 증진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주관적 안녕감과 학교적응 유연성을 증진시킨다고 했다.

낙관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낙관성 수준이 높을수록 어려운 상황에서 심리적인 고통을 적게 경험하고 보다 더 안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상황에 적응하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Scheier, Carver, & Bridge, 1994). 김숙영(2010)의 연구에 의하면 낙관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적응 및 학교생활 적응을 잘하며, 낙관성이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과정에서 친구지지가 낙관성과 상호작용하여 그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낙관성은 아동들이 대인문제를 극복하는데 있어 중요한 개인의 역동적인 능력이 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아동의 대인문제해결에 있어 주요 변인인 부모양육태도와 낙관성을 매개로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대인간 갈등 상황에서 아동이 취하게 될 사회적 행동으로서의 대인문제해결양식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주로 부모양육태도와 대인문제해결 능력을 다룬 연구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andura(1986)의 상호결정론의 관점에서 아동의 주요한 적응 대상이 되는 환경요인인 부모양육태도와 아동의 개인적 요인으로 낙관성, 행동요인으로서의 대인문제해결양식 간의 세 변인이 역동적으로 작용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낙관성이 두 변인 사이에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하여 낙관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해 봄으로써, 또래와의 갈등상황에 직면하여 어려움에 처한 아동을 위하여 낙관성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을 위한 실천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장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양육

태도라는 점과 개인의 행동을 설명·예측하는 성격변인인 낙관성에 따라 아동의 대인문제해결양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낙관성이 부모양육태도와 대인문제해결양식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아동의 낙관성, 대인문제해결양식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낙관성은 부모양육태도와 대인문제해결양식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지니는가?

3. 용어의 정의

1) 부모양육태도

부모양육태도는 부모, 또는 부모를 대신하는 보호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내적, 외적인 태도를 말한다(오성심, 이종승, 1982). 본 연구에서는 오성심과 이종승(1982)이 제작한 부모양육태도 지각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부모양육태도 하위영역으로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를 포함한다.

2) 낙관성

낙관성이란 앞으로 발생하게 될 상황이나 결과들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대로, Scheier와 Carver(1992)가 말하는 성향적 낙관성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감을 말하며 김주용과 이지연(2008)이 제작한 아동의 성향적 낙관성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3) 대인문제해결양식

대인문제해결양식은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중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인지적, 행동적 과정으로 다양한 양식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대인문제해결양식이란 또래 간 갈등상황에서 아동이 제시된 갈등상황을 이해하고, 그 갈등상황에서 아동이 가장 유력하게 반응하게 될 사회적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주장적·소극적·공격적 행동 양식을 의미하며 황옥경(1997)이 제작한 아동의 대인문제해결양식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대인문제해결양식

1) 아동의 대인문제해결

초등학교 시기는 대인관계 범위가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학교와 친구로 확대되는 시기로 아동의 사회성 발달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아동은 학교 및 학급에서 또래들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을 발달시키게 된다. 이처럼 아동의 사회화의 기초는 바로 또래간의 관계 형성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연구들에서 성장과정에서의 친구관계의 중요성을 밝힌바 있는데, Erikson(1963)은 초등학교 입학 후에 친구들과의 대인관계가 아동들의 자기존중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Smoller와 Youniss(1982)에 의하면 개인은 친구와의 우정을 통해 협동성과 상호존중, 대인관계 감각을 발달시키게 되고 이러한 능력은 이후 다른 사회적 관계들에 확장, 적용된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Sullivan(1953)은 아동기에 또래들과 맺은 친밀한 관계는 청소년기 이후의 대인관계 적응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초기어린시절에 경험한 관계의 결핍까지도 보상해 줄 수 있다고 하여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친구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김혜숙, 2005, 재인용).

아동들은 또래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나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야기되는 갈등이나 문제를 조망하고 해결하는 것은 대인관계의 시작이나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사회적 능력이다(Asher & Renshaw, 1981). 이러한 갈등은 아동들의 인지적, 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Shantz & Hobort, 1989), 사회적인 이해를 증진시키고 부정적인 감정조절의 학습기회를 제공한다(Katz, Kramer, & Gottman, 1992). 때문에 Fronzi 등(1997)은 친구관계에서 갈등은 존재 여부보다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이민영, 2006). 이렇듯 문제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발달에 필수적이며 사회적 기술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대인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은 대인관계와 사회적 적응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친다.

또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또래에게 수용되지 못하는 등 부적응 행동이 나타난다. 그로인해 또래들과 상호작용 할 기회를 잃어버려 원만한 또래관계를 맺기 힘들고, 사회에도 적응할 수 없게 된다. Roffe, Sells와 Golden(1972)은 아동기에 친구로부터의 수용여부는 미래의 정신적 건강과 정서적 안정성 그리고 사회인지 발달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문제행동이나 정서장애 등을 예측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박옥철, 2004, 재인용). 실제 정서와 행동 상의 부적응을 경험하는 아동과 청소년이나 정신과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생활에서 무력감이나 좌절감, 불쾌감과 함께 자기비하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Spivack & Shure, 1976; 송우선, 2008, 재인용)고 한다. Carey 등(1995)은 대인관계문제와 심리적 건강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에서, 대인관계문제가 적을수록 자기실현의 정도와 대인친밀성의 정도가 높다고 하였다(조윤경, 2011). 따라서 아동의 또래관계는 삶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므로 현재 및 미래의 심리적 건강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로 볼 때 친구 간 대인문제해결양식은 아동의 성장·발달과 이후의 성공적인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의 대인문제해결 및 또래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2) 대인문제해결양식의 이론적 모형

대인문제해결양식이란 가상적 또래 간 갈등상황에서 아동이 제시된 갈등상황을 이해하고, 그 갈등상황에서 아동이 하게 될 사회적 행동 양식을 말하는데, 본 장에서는 ‘대인문제해결능력’이라는 좀 더 넓은 학문적 용어를 통해 아동의 대인문제해결양식에 대한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대인문제해결능력이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고하는 능력으로 타인의 감정, 사고, 의도, 욕구에 대해 생각하고 지각할 수 있는 능력(Marsh, Serafica, & Barenboim, 1980)을 말한다. Jahoda(1953)는 대인문제해결행동과 적응의 관련성을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그는 대인간 갈등상황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건강한 정신건강을 판가름 할 수 있는 준거라고 하였다.

Spivack과 Shure(1974)는 대인간 인지적 문제해결능력 검사를 제작하여 가상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아동의 실제적인 해결방안을 밝히려고 시도하였다. 그들은 대인문제해결 기술을 다음의 네 가지 사고로써 설명하고 있다. 첫째, 대안적 사고(alternative thought)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화 될 수 있는 다양한 해결책들을 생성해 내는 능력이다. 둘째, 결과적 사고로(consequential thought)로 대인행동을 했을 때 결과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하는 능력이다. 셋째, 원인적 사고(casual thought)로 하나의 사건과 그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사건을 연관시키는 능력이다. 넷째, 수단-목적사고(means-ends thought)로 목적달성을 위해 한 단계씩 주의 깊게 계획하고 목적달성에 결과가 될 수 있는 장애요인과 적절한 시간을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태현, 2003, 재인용). 이들 연구의 기본 가정은 아동이 가상적 갈등상황에 대해 생성해 낼 수 있는 문제해결방안의 숫자가 적응과 높은 상관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해결방안의 숫자보다는 그 유형과 질이 개인의 사회적 유용성을 더욱 잘 예언한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Selman과 Demorest(1984)는 해결방안의 내용 수준을 통하여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능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Selman 등(1984)의 모형에서는 대인문제 상황의 해결방안 수준은 사회적 조망수용 능력에 따라 0에서 3수준까지 4단계로 분류된다. 0수준은 충동적 단계로 자신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공격적, 충동적 방안을 사용하며, 1수준은 일방적 단계로 자신의 목표달성을 위해 일방적 요구 방안을 사용하고, 2수준은 상호적 단계로 상호적이지만 자신의 욕구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고, 3수준은 공동적 단계로 상호적인 사고를 하며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단계로 자신의 소망과 상대방의 소망을 함께 변화시키고자 한다. Selman 등(1984)은 대인문제해결에 있어 문제 상황에서 아동이 자신의 생각, 감정 및 동기와 관련지어 타인의 생각, 감정, 동기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사회적

행동으로 통합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었으며, 대인문제해결의 핵심적 단위는 “상호적 행동”이라고 보았다.

이상에서와 같이 대인문제해결능력에 관한 여러 연구가들의 이론을 살펴보았다. Jahoda(1953)가 대인문제해결에 관한 접근을 시도한 이래 Spivack 등(1974)은 대인문제해결 사고에서 얼마나 많은 해결방안을 산출해 내는가 하는 양적인 측면의 연구를, Selman 등(1984)은 산출한 해결 방안들이 얼마나 적절하고 효과적인가 하는 질적인 측면을 연구하였다. 대인문제해결 방안의 양과 질은 아동의 사회적응에 척도가 된다. 그러나 해결방안이 많다 해도 그 내용이 부정적이고 공격적, 회피적일 때, 바람직한 사회적 행동은 나올 수 없으며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Spivack 등(1974)과 Selman 등(1984)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인문제해결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문제해결 행동의 평가 측면은 서로 차이를 보이지만 모두 대인문제해결의 사회적 행동 측면보다는 인지능력 측면에서 대인문제해결 행동을 이해하였다. Andre(1986)는 대인문제해결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들을 인지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의적 요인, 행동적 요인이 있다고 하였다. 즉 대인간 문제 해결력을 기르기 위해선 인지적 기술도 중요하지만 정의적 처치와 더불어 문제 해결적 접근을 같이 시도하는 것이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큰 효과가 있음이 추론되었다(박진영, 2001).

대인문제해결행동은 갈등상황에서 취하게 되는 일종의 자기표현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잘 표현하지 못할 때, 대인관계에서 소극적이고 위축된 태도가 형성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많다. Alberti와 Emmon(1970)은 자기표현이란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바를 할 수 있게 하고 큰 불안이 없이 자신을 옹호하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는 행동이라고 하였다(김호숙, 2005, 재인용). 자기표현은 대인관계의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이를 상대방의 인격과 권리를 인정하면서 실제 상황에서 표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기표현 행동은 주장적·소극적·공격적 행동으로 구분된다. 주장적 행동은 인간적 권리를 유지하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자신의 감정, 신념, 견해를 솔직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며 자신에 대한 확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소극적 행동이란 자신의 욕구나 권리를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표현

하는 것이다. 공격적 행동이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면서까지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다(최윤희, 1993). 따라서 대인문제해결 맥락에서 볼 때, 주장적인 행동은 수동적, 공격적 행동보다 긍정적이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행동들을 다음 도표와 같이 구분 할 수 있다.

<표 II-1> 주장적 행동, 소극적 행동, 공격적 행동의 특징별 비교

구분	주장적 행동	소극적 행동	공격적 행동
행동들의 특징	자신의 욕구와 권리를 표현함	자신의 욕구, 권리표현을 하지 못함	타인을 희생하여 욕구와 권리를 표현함
	정서적으로 정직하고 직접적으로 표출	정서적으로 정직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표현	정서적으로 정직하나 누군가를 희생하도록 표현
	자기 향상적	자기 부정적	자기 향상적
	인간의 권리를 유지하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	타인에게 인간적 권리를 침해하도록 허용함	부적절한 적의에 과잉 반응하고 타인에게 멸시와 창피를 준다.
행동을 하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	좋은 감정, 확신감	불안, 자기에 대한 실망과 뒤늦게 분노	당당한 우월감, 분노, 나중에 피해 의식
타인에게 느끼는 감정	존경	안달, 초조, 동정, 연민	분노, 원한, 복수심
결과	목표성취	바라는 목표 불 성취	타인을 희생하여 목표성취

출처 : 변창진, 김성희, 1980 : 56-61

이제까지의 대인문제해결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으며, 대부분 대안적 사고나 결과예측 사고 또는 원인적 사고 등 제한적인 부분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경향성은 아동이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으면 문제 상황도 효과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지적 양식과 능력을 위주로 한 인지과제 중심의 평가 연구는 갈등상황에서 아동이 보이는 사회적,

정서적 행동 양상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하고 있다(황옥경, 1997). 이상의 여러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대인문제해결양식을 주장적·소극적·공격적 행동양식으로 나누어 대인문제해결양식을 측정하고자 한다. 이에 아동의 일상생활에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반응을 확인해 보는 연구는 아동의 대인문제해결양식을 사회적 측면에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2. 부모양육태도

1) 양육태도의 개념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최초로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고 기본적인 행동양식을 배워 나가며 성장하게 되는 곳으로 인간 성장발달의 기초적 환경이 되는 곳이다. 이러한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간의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의 심리적 환경이 물리적 환경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심리적 환경 중에서 자녀의 정서 및 성격특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부모양육태도라 할 수 있다(하유정, 2007).

부모양육태도는 17세기까지만 해도 엄격한 훈육과 체벌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여겨졌으나, 그 후 소아학과 심리학의 발달로 다양한 양육태도의 효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Freud에 의해 초기 경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부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이론화 작업이 시작되었다(김은희, 2002).

아동에게 최초의 인간관계를 맺는 부모는 사회적 행동의 모델이 되고, 부모로부터 배운 사회적 역할은 아동들에게 깊이 각인되어 영향을 미치며(이옥순, 2008), 아동들이 부모들과 맺는 관계는 그들의 현재와 장래의 행복과 밀접하게 관계된다(Greenberg et al., 1983). 이처럼 부모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사회적 능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러한 자녀에 대한 부모양육태도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어진 다. Becker(1964)는 양육태도를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으로 정의하고, 자녀의 성격이나 행동 뿐 아니라 정서, 인지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오성심, 이종승(1982)은 양육태도란 부모나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외현적, 내현적,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나타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행동양식이며 이는 자녀의 성격을 형성하고 지적, 정의적 능력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2) 양육태도의 유형

부모양육태도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므로 학자들은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하여 양육태도 유형을 분류하였는데 분류 방법에 있어서 약간씩 차이가 있다. 양육태도의 유형을 최초로 이론화 시킨 Symonds(1949)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거부, 지배-복종을 양극으로 하는 두 개의 요인 축에 의해 부모의 양육태도를 크게 2개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2개 차원을 다시 지배에는 기대형과 엄격형으로, 복종에는 익애형과 복종형, 수용에는 간섭형과 불안형, 거부에는 소극적 거부형과 적극적 거부형의 형태로 분류하였으며, 가장 이상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란 중용을 택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Symonds(1949)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공헌을 했으나 그의 이론은 정신분석학에 힘입었으며 임상 사례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으로만 설명되었고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건전한 태도에 대한 언급이 없어 부모의 양육태도를 정상적인 기준에 의거 설명하는데 실패했다(심봉황, 2000, 재인용).

이에 대해 Schaefer(1965)는 정상적인 부모의 양육 태도를 장기적으로 연구하여 Symonds(1949)와는 다른 이론 모형을 발표하였다. 그는 신생아기부터 초기 청년기에 이르는 동안의 발달과 부모양육태도를 함께 연구하여, 양육태도를 애정-적대의 축과 자율-통제의 2개의 축으로 분류하여 가설적인 원형모형을 제시하

였다. 그는 정상적인 부모양육태도의 축을 애정-거부, 자율-통제로 명명하고 이 두 축을 중심으로 평면상에 애정적-자율적 태도, 애정적-통제적 태도, 적대적-자율적 태도, 적대적-통제적 태도 등 네 개의 정사각형 영역을 나누었다. 그는 가장 바람직한 양육태도는 애정적-자율적 태도로 보았으며 이러한 양육태도를 지닌 부모 밑에서 성장하는 자녀는 능동적, 외향적이고 독립적이며 사회적응을 자신 있게 하며 사교적이고 창의적이며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 적대감이 없다고 했다.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정원식(1989)은 양육태도라는 개념을 포괄하는 가정의 과정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가정환경을 지위환경, 구조환경, 과정환경의 측면에서 분류하고 가정의 과정환경을 다시 수용-거부, 자율-통제, 보호-방임, 성취-안일, 개발-폐쇄 등으로 세분하여 설명하였다.

오성심과 이종승(1982)은 Schaefer 의 양육태도 이론에 근거하여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조사하였는데, 이들은 부모양육태도 유형을 애정지향, 자율지향, 성취지향, 합리지향의 네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고 구성하여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양육태도로 양극화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애정-적대** 차원에서 애정적 태도란 수용적이고 헌신적이다. 자녀와 함께 게임을 하거나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상담이나 칭찬, 격려 등을 아끼지 않는다. 적대는 자녀의 일에 무관심하며 소홀한 편이고, 자녀를 위한 시간을 별로 내주려 하지 않으며 비난 및 체벌을 자주 가하고 자녀의 단점을 강조한다.

둘째, **자율-통제** 차원에서 자율은 자녀의 개성 및 의견과 권리는 존중하고 지나친 감독과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또한 자녀의 스스로의 생각과 처리 및 책임지는 습관을 권장한다. 통제는 부모의 권위를 강조하고 전체적인 편이다. 그리고 엄격하고 많은 제한을 두며 설명이나 이유보다는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한다.

셋째, **성취-비성취**에서 성취는 높은 포부 수준을 설정하여 일을 해내도록 기대하는 경향을 보인다. 비성취는 자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맡은 일에 대한 책임 완수의 여부에 무관심하다. 새로운 일이나 경험 및 호기심에 대한 요구도 비협조적이다.

넷째, **합리-비합리**에서 합리는 매사에 이유를 중요시한다. 자녀에게 일의 동기는 근거의 제시를 요구하며 교육에 있어서 합리적인 편이다. 비합리는 이유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의 동기나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우선 따지는 편이며, 교육에 있어서도 그때그때의 감정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인다.

이상과 같은 양육태도 분류방법은 각 학자들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는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부모의 자녀양육 유형을 두 개의 축, 즉 Schaefer(1965)와 유사한 애정-거부의 축과 자율-통제의 축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chaefer(1965)는 부모의 실제 행동보다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이 자녀의 적응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부모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잘 해주어도 자녀가 거부적으로 지각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대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보다 자녀가 지각하고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를 오성심과 이종승(1982)이 애정-거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의 4개 영역으로 분류한 척도를 사용하여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낙관성, 대인문제해결과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3. 낙관성

1) 낙관성의 개념 및 특성

긍정 심리학은 심리학 분야에서 인간의 부정적인 상태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되어 왔던 것에 대한 반성으로, 인간의 보다 긍정적인 상태에 초점을 두며, 정상적인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다(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긍정심리학에서는 심리적인 속성의 하나인 낙관성이 개인의 적응 과정 및 심리적, 신체적 건강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안정적인 변인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낙관성(optimism)이란 앞으로 발생하게 될 상황이나 결과들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대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낙관성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함께 실제 미래의 성취를 위한 행동의 변화를 불러일으켜 삶의 적응을 돕는 변인으로 여겨진다(Scheier & Carver, 1985).

낙관성에 대한 이론적 모델은 크게 두 가지 접근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Scheier와 Carver(1985)는 낙관성을 미래에 나쁜 것 보다는 좀 더 나은 것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낙관성을 성향적 낙관성(dispositional optimism)이라고 하였다. 또한 낙관성을 상황 특정적이거나보다는 시간과 상황이 바뀌더라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안정적인 성격 특성으로 보았고, 이러한 낙관성이 개인의 사고, 판단, 행동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고 여겼다. 성향적 낙관성은 낙관성을 통해 나타나는 효과들이 현실적 가능성에 부합하는 개인의 기대 정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흔히 자기통제모델로 설명되기도 한다(Scheier & Carver, 1992).

Seligman(1991)은 낙관성을 넓은 범위의 성격 특성이라기보다는 낙관적 설명양식으로써 개념화하였다. 낙관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건이나 경험들의 원인이 외부적이고 일시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있다고 귀인하는 반면에 비관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건이나 경험들의 원인이 내부적이고 포괄적인 사실들에 있다고 귀인한다. 따라서 Seligman(1995)은 자신이 겪는 실패는 일시적인 것이며 역경에 맞서 견뎌내며 다음 행동에 의해 극복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낙관성을 정의하였다.

이 두 접근의 공통점은 ‘기대’로, 낙관성은 좋은 결과에 대한 기대이고, 비관성은 나쁜 결과에 대한 기대라고 할 수 있다(Carver & Scheier, 2002). 이때, 성향적 낙관성이 심리학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왔고,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알려져(Norem & Chang, 2000)정신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설명한다고 하겠다(김민정, 2006, 재인용)

낙관적인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낙관적인 사람이 비관적인 사람보다 상황에 대한 통제능력이 뛰어났으며(Helton, 2000), Brissette 등(2002)은 낙관성 수준이 높은 사람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리적인 불편함을 덜 경험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낙관적인 사람들은 문제해결에 있어서 보다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며 자신이

직면한 문제 상황을 다루는데 계획적이고 자신의 대처 노력에 초점을 두며(신정원, 2002), 문제해결 양식에 있어 타협적이고 협력적인 갈등해결양식을 사용한다(노현숙, 2006). 또한 낙관성은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적응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 되어왔다. 인간관계 측면에서 낙관성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호감을 많이 주고, 더 오랫동안 우정을 유지한다고 보고되었다. 그리고 낙관적인 사람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원을 받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를 더 증가시키는 특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유성경, 조하나, 2003).

위의 선행연구들에서 보듯이 낙관성은 개인의 적응과정, 심리적 및 신체적 건강과 관련해 긍정적인 기능을 하며, 개인의 사고, 판단,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낙관성의 발달

낙관성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유전과 환경의 영향으로 나뉘볼 수 있다. 첫째 쌍둥이 연구를 통해 유전은 낙관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나타났다(Plomin et al., 1992). 둘째, 환경적인 요인으로 부모나 교사,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경험들이 낙관성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Scheier와 Carver(1993)는 성향적 낙관성은 부모의 역할에 따라 개인적 차이를 보이므로 부모의 칭찬과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eligman(1995)은 부모의 낙관성이 자녀의 낙관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으며, 낙관성과 같이 인생이나 사물을 보는 시각은 어린 시절에 형성된다고 하였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한 것처럼 아동기의 경험은 낙관성 발달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중에서도 아동기에 가장 가까이 지내며 아동과 수많은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대상은 바로 부모이다. 부모는 아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동에게 격려나 보상 정도 및 부모가 제공한 모델링에 의해 낙관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Carr, 2004; 하양명, 2011, 재인용).

Andrew와 Brewin(1996)은 낙관적인 사고를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정의하였다.

즉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바탕으로 인생을 밝은 시각에서 바라보고 자신의 미래를 보다 밝게 꾸려 나가려고 하는 사고라는 것이다. 긍정적인 자기평가와 사고방식은 자녀들이 부모들의 태도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낙관성은 학습이 가능하고 한 번 숙달되면 지속되는 속성이 있다. 따라서 비관적인 사람들도 낙관성의 기법을 배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Seligman, 1995).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낙관성은 부모가 제공한 모델링에 의해 발달하며 이런 발달과정에는 부모의 영향이 크게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4. 부모양육태도 및 낙관성과 대인문제해결양식과의 관계

1) 부모양육태도와 낙관성

부모와의 관계를 자녀가 어떻게 경험했는가는 자녀의 성격형성이나 지적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Bronfenbrenner & Mahoney, 1975)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부모의 태도는 개인의 성격발달을 결정해주는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Sears, 1965; 이민영, 2006, 재인용). 부모와 자녀의 낙관성 수준은 유사하며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에 대한 부모의 설명양식과 아동의 설명양식은 깊은 관련이 있다(Seligman, 1995). 이는 아동의 행동에 대한 과거의 계속적인 경험이 낙관성의 발달과 관련이 있고, 부모는 아동의 행동에 강화를 줌으로써 아동의 행동을 통제함을 말해준다.

Miller(1999)는 개인의 행동은 그가 가진 생각의 결과라고 하였다. 즉, 개인에게 내재화된 성향이나 가치관 등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표출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자녀가 일상생활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부모의 낙관성으로 부터 영향을 받아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다(하양명, 2010).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고연경(2011)은 아버지의 성향적 낙관성이 자녀의 낙관성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낙관적인 아버지일수록 가정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표현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덜 표현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녀도 본인이 낙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양명(2010)은 부모의 낙관성은 부모의 행동으로 외현화 되어 지속적으로 긍정적 강화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김성수(2006)는 어머니의 낙관적 사고는 일상생활에서 어머니가 보여주는 말투나 표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녀의 양육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유아의 낙관적 믿음과 어머니의 낙관성과의 관계를 연구한 최선영(2007)은 어머니의 낙관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낙관적 믿음이 높다고 밝혔다. 부모양육태도와 자녀의 낙관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나 부모의 낙관성과 자녀의 낙관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부모양육태도는 아동의 낙관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2) 부모양육태도와 대인문제해결양식

아동은 주로 부모를 통하여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학습하며, 부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기의 역할을 인식하고, 생활양식 및 행동양식을 모방하여 사회규범에 맞는 행동을 학습한다(오성심, 이종승, 1982). 이는 부모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아동의 친구관계와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Spivack 등(1972)은 부모양육태도는 아동이 실제적으로 대인적인 문제 장면에서 부딪혔을 때, 아동이 사용하는 해결방안의 형태를 결정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황옥경(1997)의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부모의 양육을 받은 유아의 경우는 긍정적으로 대인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갖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부모양육태도는 아동이 친구 간에 갈등을 겪을 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향순(2007)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들은 부모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친사회적인 갈등해결전략인 절충 및 협력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송은주(2003)는 가정환경이 수용적이고 애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한 아동이 거부

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동에 비해 대인관계에서 문제해결 방안을 더 잘 생각해내며, 긍정적이고 대안적인 해결 사고를 많이 한다고 하였다. 또한 긍정적인 부모 양육태도가 아동의 대인문제해결 사고와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이선희, 2000)고 하여 부모양육태도는 아동의 인지적, 정의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서보윤(2008)은 부모양육태도를 이상형으로 인지하는 아동이 방임형으로 인지하는 아동보다 대인갈등상황에서 자기주장 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 하였으며, 이혜진(2002)은 부모양육태도(허용적, 권위적)에 따라 대인문제해결능력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부모양육태도는 아동의 정의적, 인지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아동의 대인문제해결능력을 발달시켜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종합할 때, 대인문제해결 행동은 가정환경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요인 중 부모양육태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모가 온정적이며, 자녀와 상호작용하면서 긍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하고 민감하고 적절하게 반응할수록, 아동은 대인문제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는데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3) 낙관성과 대인문제해결양식

Seligman(1991)은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 낙관성 수준이 높은 사람은 비관적인 사람에 비해 수용, 유머 사용을 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처한다고 하였다. 또한 낙관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은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하며 그 과정 속에서 문제나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낙관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은 주로 문제의 핵심을 생각하며 문제에 정면 도전 하고자 한다(오현미, 2007).

낙관주의자는 문제에 직면하면 자기능력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을 시도하는 반면, 비관주의자는 자기에게 문제해결능력이 결여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송종화, 2006). 조하나(2003)의

연구에서는 낙관성 수준이 높은 사람은 우호적인 상황에서 낙관성 수준이 낮은 사람에 비해 보다 더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타인의 반응을 기대하며 타인의 반응에 대해 더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적대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우호적인 반응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옥란(2006)에 의하면 낙관성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여 심리적 적응,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이 잘 되어보다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태도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김정수(2008)는 낙관성이 높은 청소년은 현실적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이나 긍정적 정서와 같은 심리적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비관성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부모 등 의미 있는 타인의 사회적 지지를 통해 부적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낙관성이 높은 이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대처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노현숙(2006)의 연구에서도 낙관성 수준이 높은 사람이 타협적이고 협력적인 갈등해결양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낙관주의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심리적인 고통을 적게 경험하고 훨씬 더 안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상황에 적응해 간다(Scheier, Carver, & Bridge, 1994)는 연구와 일치한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낙관적 사고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보다 적응적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지니고 상황에 대처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여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학교생활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부모양육태도 및 낙관성과 대인문제해결양식

지금까지 부모양육태도와 아동의 낙관성이 대인문제해결양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선행변인인 부모양육태도와 아동의 낙관성간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대인문제해결방식에서 부모양육태도와 및 낙관성과 같은 개인의 특성과의 단일관계만을 연구하였다.

Bandura(1986)의 사회학습 이론 관점에 따르면 심리적 기능은 행동적, 인지적, 그리고 환경적인 영향력들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이라는 견지에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 즉 환경이 인간행동에 영향을 주지만, 개인의 신념이나 기대와

같은 개인특성 또한 인간의 행동방식에 영향을 주며 개인과 환경, 행동의 세 변인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한 변인이 다른 두 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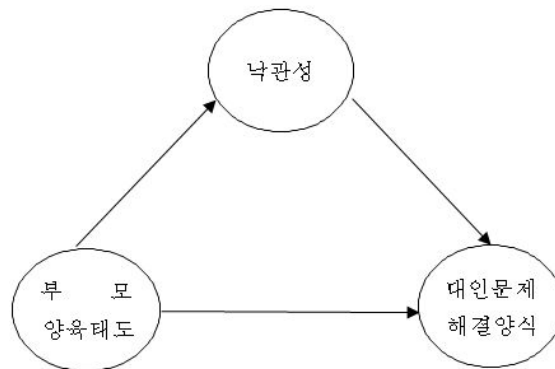
부모양육태도와 대인문제해결양식과의 관계에서 아동의 개인 특성인 낙관성을 매개적 역할로 살펴본 선행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개인 내적 요인인 낙관성과 자아탄력성 등을 매개로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드물게 찾아볼 수 있다. 조윤경(2010)의 연구에서 모 애착이 높을수록 낙관성이 높아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 애착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낙관성이 부분매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 애착은 직접적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더불어 모 애착이 높을수록 낙관성을 향상시키고 이러한 낙관성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김경민(2011)은 부모양육태도와 주관적 안녕감의 상호 관련성에 자아탄력성이 개인적 성격 특성으로 매개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손은정, 홍혜영, 이은경(2009)은 종교성과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낙관성의 매개역할을 살펴보았는데 낙관성이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부모양육태도, 낙관성, 대인문제해결 행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임을 알 수 있으며 부모양육태도와 대인문제해결양식 간의 관계에서 낙관성이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Ⅲ.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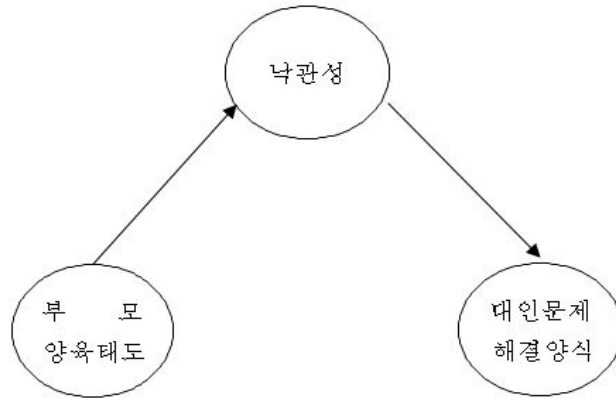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낙관성, 대인문제해결양식 간의 전반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또한 낙관성이 부모양육태도와 대인문제해결양식 간에 어떠한 매개효과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양육태도가 대인문제해결양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낙관성을 매개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모형은 [그림 Ⅲ-1]에, 경쟁모형은 [그림 Ⅲ-2]에 제시했다.



[그림 Ⅲ-1] 연구모형(부분매개)

연구모형은 낙관성이 부모양육태도의 영향을 받아 대인문제해결양식을 설명하는 매개변인 역할을 하지만, 부모양육태도가 아동의 대인문제해결양식에 직접적인 설명경로도 유의한 모형으로 낙관성이 부분 매개하는 모형이다.



[그림 III-2] 경쟁모형(완전매개)

경쟁모형은 낙관성이 부모양육태도의 영향을 받아 대인문제해결양식을 설명하는 매개변인 역할을 하며, 부모양육태도가 아동의 대인문제해결양식에 직접적인 설명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모델로, 낙관성이 완전 매개하는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중에서 적합도에서 자료 설명력이 더 높은 모형을 채택하고자 하였다.

2. 연구가설

위와 같은 연구모형에 나타난 경로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낙관성, 대인문제해결양식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을 것이다.

가설2. 낙관성은 부모양육태도와 대인문제해결양식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지닐 것이다.

IV.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주시내에 소재한 3개 초등학교 4~6학년 남, 여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을 선정한 이유는 Piaget(1965)의 인지 발달단계에 따라 만 10세에서 12세에 해당하는 시기로 타인에 대한 관점을 획득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부모양육태도 및 대인문제해결양식을 지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를 위해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무응답과 불성실한 자료 33부를 제외한 367부의 자료가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분포는 <표 IV-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IV-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분포 (n=367)

변 인		빈도	백분율
학년	4학년	118	32.2
	5학년	98	26.7
	6학년	151	41.1
	합계	367	100.0
성별	남자	188	51.4
	여자	179	48.6
	합계	367	100.0
부모동거	동거	344	93.7
	비동거	23	6.3
합계		367	100.0

2. 측정도구

1) 부모양육태도 지각 척도

본 연구에서는 Schaefer(1959)의 [PARI]을 바탕으로 오성심과 이종승(1982)이 제작한 것을 임선화(1987)가 반복되는 문항을 간추려 4개의 하위영역에 각 10문항씩 40개의 문항(긍정적 문항: 22, 부정적 문항: 18)으로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양육태도에 대해 아동이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부모양육태도를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와 같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양극화 시켰다<표 IV-2 참조>. 임선화의 연구에서는 '그렇다, 아니다'의 양자택일 반응형식을 문항별로 부와 모 각각에 대해 '매우 그렇다(4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 4단계로 반응하도록 되어있다. 이 척도의 점수 범위는 부와 모 각각 하위문항별 최저 10점에서 최고 40점까지이며, 부정적 진술문항은 역점수로 환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방법의 각 차원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아동이 자신의 부모가 애정·자율·성취·합리적인 방향으로 양육하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하위 유형별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표 IV-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IV-2> 부모양육태도 지각 척도의 하위유형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유형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a)	문 항 내 용 (예시)
애정-적대	10	1,4*,13,17*,21, 25,29,33*,34, 37*	.90	(긍정문항) 부모님은 나와 다정하게 자주 이야기를 한다. (부정문항) 부모님은 내 말을 아주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자율-통제	10	2*,6,10,14,18*, 22,26*,30*,38, 40*	.76	(긍정문항) 부모님은 "자기 일은 자기가 처리 해야 한다." 고 말씀 하실 때가 많다. (부정문항) 부모님은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할 때가 많다.

성취-비성취	10	3,7*,11,15,19, 23,27*,31*,35,39	.85	(긍정문항) 부모님은 위인들의 훌륭한 업적 이나 성공한 사람의 얘기를 자주 들려주신다. (부정문항) 부모님은 새로운 일이나 여행은 위험하다고 못하게 하신다.
합리-비합리	10	5*,8,9,12*,16*, 20*,24*,28,32, 36*	.85	(긍정문항) 부모님은 형제들을 야단치실 때 차별하는 일이 없다. (부정문항) 부모님은 화가 나실 때 식구들에 게 화풀이하는 경우가 많다.

*는 부정적으로 진술된 문항으로 역산으로 채점 된다.

2) 아동용 성향적 낙관성 척도

아동의 낙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김주용과 이지연(2008)이 개발한 아동용 성향적 낙관성 척도(The Children's Life Orientation Test: CLOT)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2개 문항으로 2개 문항은 성향적 낙관성 측정과 무관한 가짜문항이고, 10개 문항이 낙관성을 측정하는 문항(긍정적 문항: 5, 부정적 문항: 5)이다. 김주용과 이지연(2008)의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82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0으로 나타났다.

문항의 반응형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 '대체로 그렇지 않다'(2), '대체로 그렇다'(3), '매우 그렇다'(4)의 4단계 척도를 사용하며 총점의 범위는 10~40점이다. 부정적 진술 문항은 역점수로 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낙관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이 검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낙관성의 문항수와 문항 구성은 <표 IV-3>과 같다.

<표 IV-3> 아동용 성향적 낙관성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차원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a)	문 항 내 용 (예시)
성향적 낙관성	10	2,3*,4,5*,6, 7*,10*,11,12*	.80	(긍정문항) 내게는 나쁜 일 보다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부정문항) 내 생각대로 되는 건 별 로 없다.
가짜문항	2	1,9		

*는 부정적으로 진술된 문항으로 역산으로 채점 된다.

3) 대인문제해결양식 척도

본 연구에서는 대인 갈등상황에서 아동의 문제해결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된 황옥경(1997)의 척도를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황옥경(1997)은 대인문제해결 행동에 대한 가상 상황의 척도를 구상하기 위해 Shure와 Spivack (1972)이 제작하고 Pellegrini(1985)이 수정한 Problem Solving Scale, Rabiner(1990)의 Social Problem Solving Scale, Selman 등(1986)의 Interpersonal Negotiation Strategies, 그리고 Rudolph(1993)의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Questionnaire를 참고로 하여 제작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자기보고형 질문지로 아동이 또래에 의해 좌절하거나, 또래에 의해 화가 나거나, 또래 집단에 속하려고 하는 등의 갈등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인문제해결양식을 주장적·소극적·공격적 3가지 양식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자료수집을 위하여 각각에 대하여 3, 2, 1을 부여하였다. 하위요인별 점수 범위는 주장적 3~60점, 소극적 2~40점, 공격적 1~2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은 대인문제해결을 위하여 주장적인 양식을 사용하여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으나, 점수가 낮을수록 소극적이거나 공격적 행동양식 사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하였다.

황옥경(1997)의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74였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79로 나타났다. 아동의 대인문제해결양식의 각 문항에서 제시될 3가지 응답유형의 내용은 <표 IV-4>와 같이 구성하였으며, 문항예시는 <표 IV-5>와 같다.

<표 IV-4> 대인문제해결양식 척도의 구성과 문항별 응답유형

대인문제 해결양식	대인문제해결양식별 문항번호
주장적	1-①, 2-③, 3-①, 4-①, 5-②, 6-③, 7-③, 8-①, 9-③, 10-② 11-②, 12-①, 13-③, 14-②, 15-①, 16-①, 17-②, 18-②, 19-①, 20-③
소극적	1-②, 2-②, 3-③, 4-③, 5-③, 6-①, 7-①, 8-②, 9-②, 10-① 11-③, 12-③, 13-②, 14-①, 15-③, 16-③, 17-①, 18-③, 19-③, 20-①
공격적	1-③, 2-①, 3-②, 4-②, 5-①, 6-②, 7-②, 8-③, 9-①, 10-③ 11-①, 12-②, 13-①, 14-③, 15-②, 16-②, 17-③, 18-①, 19-②, 20-②

* 1-①에서 앞의 숫자는 문항 번호를 의미하며(총 문항은 1부터 20까지임), 뒤의 숫자는 각 문항에서 대인문제해결양식에 해당하는 답지의 번호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1번 문항에서 ①은 주장적 ②는 소극적 ③은 공격적 양식을 말한다.

<표 IV-5 > 대인문제해결양식 척도 문항 예시

1. 아이들이 두 편으로 나누어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나도 끼워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미 인원이 찼기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한다. 이럴 때 나는? ()

- ① 다른 편 1명을 더 데리고 올 테니 함께 게임을 하자고 할 것이다.
- ② 그 아이들이 나중에 사람이 더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기다려 보겠다.
- ③ 어떻게 해서든지 게임을 같이 할 것이다.

3. 통계분석

본 연구를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4.0과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위하여 AMOS 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라 시행된 통계기법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 통계변수 처리를 위해 빈도 분석 등의 기술 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둘째,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Cronbach's α 를 이용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각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부모양육태도와 대인문제해결 양식의 관계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 본 연구에서 세운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실시하였다.

첫째,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해 연구에서 원자료의 결측치가 포함되어 있어 모형 검증을 위한 모수와 적합도 지수의 계산은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이용하였다.

둘째,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표본 크기에 비교적 덜 민감한 적합도 지수 CFI(Comparative Fit Index), NFI(Norm Fit Index), TLI(Tucker 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등을 이용하였다.

셋째,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설정한 이론적 연구모형이 얼마나 현실에 잘 부합하는지 경쟁모형을 설정하여 평가하였다. 부분매개모형의 타당성 입증을 위해 경쟁모형으로 완전매개모형을 제시하여 χ^2 검증과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여 최종 모형을 채택하였다.

넷째, 최종 선택된 모형의 경로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 효과를 알아보았다. 또한 경로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1982) 검정을 실시하였다.

V. 연구결과

1. 부모양육태도 및 낙관성과 대인문제해결양식과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분석으로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및 낙관성과 대인문제해결양식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V-1>과 같다.

<표 V-1> 측정변수의 상관관계 (n=367)

변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부 모 양 육 태 도	① 애정-적대	1						
	② 자율-통제	.66**	1					
	③ 성취-비성취	.80**	.63**	1				
	④ 합리-비합리	.82**	.66**	.71**	1			
대 인 문 제 해 결 양 식	⑤ 주장적	.30**	.18**	.23**	.29**	1		
	⑥ 소극적	-.22**	-.12*	-.22**	-.18**	-.71**	1	
	⑦ 공격적	-.21**	-.16**	-.12*	-.24**	-.72**	-.03	1
⑧ 낙관성	.37**	.16**	.27**	.30**	.48**	-.37**	-.32**	1
평균	60.48	51.66	58.92	56.02	40.71	18.15	4.35	29.74
표준편차	12.11	8.73	11.09	10.94	11.34	5.23	2.64	5.84

* p<.05, ** p<.01

<표 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양육태도 및 낙관성과 대인문제해결양식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

모양육태도의 모든 하위요인이 낙관성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다.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 애정-적대($r=.37, p<.01$), 합리-비합리($r=.30, p<.01$), 성취-비성취($r=.27, p<.01$), 자율-통제($r=.16, p<.01$)의 순으로 낙관성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즉 부모양육태도를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으로 인식하는 아동일수록 낙관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양육태도와 대인문제해결양식과도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양육태도와 대인문제해결양식의 관계를 각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부모의 애정-적대 양육태도 측면에서는 주장적 양식($r=.30, p<.01$)과는 정적상관을, 소극적 양식($r=-.22, p<.01$)과 공격적 양식($r=-.21, p<.01$)간에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 양육태도 측면에서도 주장적 양식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소극적 양식과 공격적 양식 간에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아동일수록 또래들과의 문제에서도 주장적 행동으로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며 부모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대인문제해결에 있어 소극적 행동이나 공격적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낙관성과 대인문제해결양식의 관계에서는 주장적 양식($r=.48, p<.01$)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소극적 양식($r=-.37, p<.01$)과 공격적 양식과($r=-.32, p<.01$)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아동의 낙관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원만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낙관성이 낮을수록 대인문제를 소극적, 공격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관 분석을 통해 부모양육태도 및 낙관성과 대인문제해결양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연구자가 가정한 매개모형을 검증하기에 자료가 적합한 것을 확인하였다.

2. 부모양육태도가 대인문제해결양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낙관성의 매개효과

부모양육태도가 낙관성을 매개로 하여 대인문제해결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부모양육태도와 대인문제해결 양식 간의 관계에서 낙관성이 매개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연구 모형과 경쟁모형을 설정하여 모형 적합도와 경로계수를 분석하고 적합한 모형을 채택한 후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해 보았다.

1) 연구모형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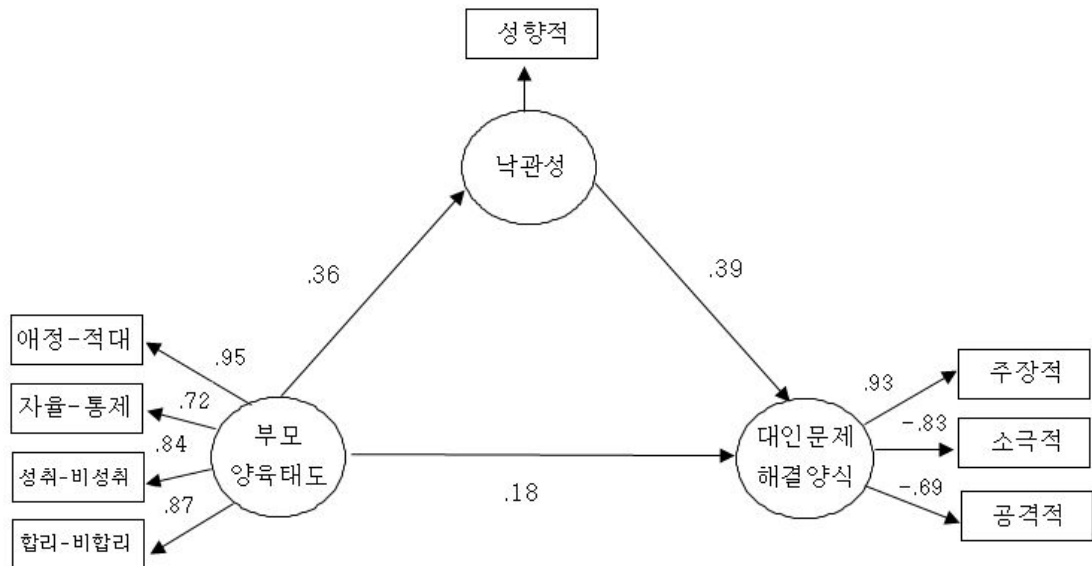
모형의 평가방법에는 χ^2 검증을 이용하는 방법과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χ^2 검증의 경우, 영가설의 내용이 엄격하여 연구 모형을 기각하기가 쉽고 표본크기에 영향을 쉽게 받는 문제점이 있어 모형을 평가하는 데 있어 대개는 다른 적합도 지수와 함께 고려된다. 적합도 지수로 모형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합도 지수가 표본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자료에 잘 부합되면서 간명한 모형을 선호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위 기준을 충족한다고 알려진 비교 부합치 CFI, NFI, TLI와 RMSEA를 사용하였다. CFI, NFI, TLI의 경우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의미하며, RMSEA의 경우 .05미만이면 좋은 적합도, .08미만이면 괜찮은 적합도, .10미만이면 보통적합도, .10보다 크면 나쁜 적합도를 의미한다(홍세희, 2000).

본 연구모형 검증을 위한 모형의 적합도는 <표 V-2>에 제시된 것처럼 CFI=.991, NFI=.985, TLI=.980으로 홍세희(2000)가 제시한 좋은 적합도 지수의 기준을 충족시켰으며, RMSEA=.063으로 괜찮은 적합도로 판명되었다. 또한 각 경로에서 경로계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V-2>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CFI	NFI	TLI	RMSEA
부분매개	39.218	16	.991	.985	.980	.063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각 구조경로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경로도와 경로계수 유의도 검증 결과는 [그림 V-1]과 <표 V-3>에 제시하였다.



[그림 V-1]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의 경로도

<표 V-3>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의 경로계수 및 유의도 검증 (N=367)

경로	B	β	SE	CR
부모양육태도 → 낙관성	.23	.36	.03	6.90***
낙관성 → 대인문제 해결양식	.75	.39	.08	8.78***
부모양육태도 → 대인문제 해결양식	.19	.18	.06	3.35***

*** p<.001

2) 경쟁모형 검증 및 최적 모형 선택

경쟁모형(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V-4>에서와 같이 CFI=.987, TLI=.973, NFI=.981, RMSEA는 .073으로서 경쟁모형 역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

준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에 대한 비교는 <표 V-4>와 같으며, 경쟁모형인 완전매개모형의 경로도와 경로계수 유의도 검증은 [그림 V-2]과 <표 V-5>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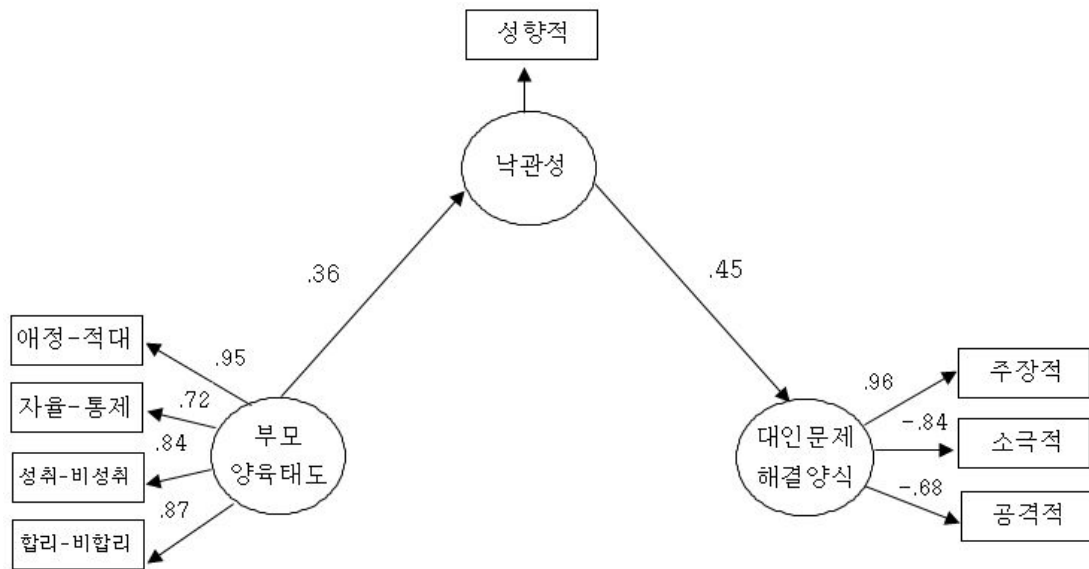
<표 V-4> 연구모형(부분매개)과 경쟁모형(완전매개)의 비교

모형	χ^2	$\Delta\Delta\chi^2$	df	p	CFI	NFI	TLI	RMSEA
부분매개	39.22		16	.001	.991	.985	.980	.063
		10.90						
완전매개	50.12		17	.000	.987	.981	.973	.073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모형인 부분매개모형과 경쟁모형인 완전매개모형 중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과 경쟁모형(완전매개모형)의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χ^2 차이 검증은 내재관계에 있는 모형들 간에 자유도의 변화에 따른 χ^2 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평가해 간명성을 고려하여 모델을 비교하는 것이다. □□□□

χ^2 값은 적을수록 적합도는 높고 자유도는 큰 것이 간결성의 가치에서 바람직하다(이학식, 임지훈, 2007). 따라서 자유도가 감소한 만큼 χ^2 값이 충분히 감소할 때 더 좋은 모형이라 볼 수 있다. <표 V-4>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부분매개모형이 완전매개모형에 비해 χ^2 값이 10.90 작고, 자유도가 1이 작다. 자유도1에서 χ^2 임계치는 유의도 수준 .05에서 3.84이므로 부분매개모형의 χ^2 값이 자유도 감소를 상쇄할 만큼 충분히 감소하여 부분매개모형이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완전매개모형도 양호한 적합도에 해당되나 부분매개모형에 비해 적합도 지수가 낮아 완전매개모형보다 부분매개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부모양육태도가 대인문제해결양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낙관성이 부분적으로 매개한다는 연구모형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그림 V-2] 경쟁모형(완전매개모형)의 경로도

<표 V-5> 경쟁모형(완전매개모형)의 경로계수 및 유의도 검증 (n=367)

경로	B	β	SE	CR
부모양육태도→낙관성	.23	.36	.03	6.90***
낙관성→대인문제해결양식	.86	.45	.08	10.57***

*** p<.001

경쟁모형 방법을 통해서 보다 적합한 모형은 부분매개모형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검증된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았다. <표 V-3>에 제시된 경로계수들을 살펴본 결과, 모형에서 설정한 모든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부모양육태도에서 낙관성으로 가는 경로($\beta=.36$, $p<.001$)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 때 아동의 낙관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양육태도는 대인문제해결양식에도 유의한 영향($\beta=.18$,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낙관성은 대인문제해결양식에도 유의한 영향($\beta=.39$,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낙관성이 높을수록 대인문제해결에 있어 주장적인 행동으로 해결하며 낙관성이

낮을수록 공격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검증결과 부모양육태도는 낙관성을 매개로 대인문제해결양식에 간접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부모양육태도가 대인문제해결양식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낙관성의 매개효과

매개효과는 독립변인에서 매개변인으로 가는 경로(a)와 매개변인에서 종속변인으로 가는 경로(b)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을 때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 V-3>에서 보는바와 같이 부모양육태도가 낙관성에 미치는 경로(a=.36, $p<.001$)와 낙관성이 대인문제해결양식에 미치는 경로(b=.39, $p<.001$)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Kenny(1979)에 의하면 구조모형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효과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독립변인에서 종속변인으로 직접 가는 경로의 효과인 직접효과이고, 다른 하나는 독립변인에서 매개변인을 거쳐서 종속변인으로 가는 간접효과이다. 간접효과는 곧 매개효과임을 의미한다. 매개효과는 독립변인에서 매개변인으로 가는 경로와 매개변인에서 종속변인으로 가는 경로의 곱으로 나타나며 전체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합이다(김정진, 2010).

매개변수인 낙관성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연구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의 변인간의 효과를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로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모형의 매개효과를 <표 V-6>에 제시했다.

<표 V-6 >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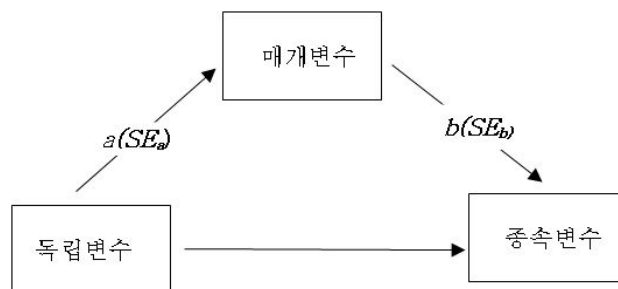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부모양육태도 → 낙관성	.356	.000	.356
낙관성 → 대인문제해결양식	.393	.000	.393
부모양육태도→대인문제해결양식	.183	.140	.323

낙관성이 부모양육태도와 대인문제해결양식을 매개하는 효과는 .140 (= .356 × .393)이며, 경로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Sobel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다.

$$Z_{ab} = \frac{ab}{\sqrt{b^2 SE_a^2 + a^2 SE_b^2}}$$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Sobel 검정은 분석방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계적 오류로 인한 오 해석을 막아주고, 매개효과를 직접적으로 검증해 주는 효과가 있다(오영아, 정남운, 2011).

위의 식에서 분자는 각각 매개효과의 추정치, 분모는 매개효과의 추정치에 대한 표준오차(SE)를 나타내며, 분모의 SE_a 와 SE_b 는 각각 추정치 a 와 b 에 대한 표준오차 값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V-3]과 같다. 검정결과 낙관성의 매개효과는 Z의 절대값이 6.124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3] Sobel Test 모형

VI.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여러 선행연구를 토대로 초등학교 아동의 낙관성과 대인문제해결양식은 그들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 세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부모양육태도 지각이 낙관성을 매개변인으로 대인문제해결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 4~6학년 367명이 응답한 자료가 사용되었다. 부모양육태도 및 낙관성과 대인문제해결양식 간의 상관분석은 SPSS 통계 프로그램으로, 부모양육태도가 대인문제해결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낙관성의 매개효과 검증은 AMOS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그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양육태도와 낙관성, 대인문제해결양식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양육태도와 낙관성 및 대인문제해결양식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양육태도는 낙관성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양육태도의 모든 하위변인도 낙관성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부모양육태도와 자녀의 낙관성과의 관계를 고찰한 직접적인 선행연구는 없지만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 때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권지혜, 2006)와 부모의 긍정적 강화를 매개로 하여 부모의 낙관성이 높을수록 자녀의 낙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하양명, 2010)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부모양육태도가 행동으로 외현화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자녀들도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모델링이 되어 낙관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행동에 대한 유년시절의 학습에 대해 강조한 Peterson과 Bossio(1991), 그리고 성공과 실패에 대한 부모 역할 모델의 중요성에 대한 Scheier와 Carver(1993)의 연구와

일치한다.

부모양육태도는 대인문제해결양식과도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 양육태도와 대인문제해결양식의 하위요인인 주장적 양식과는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 소극적, 공격적 양식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양육태도가 온정, 수용적일 때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행동이 주장적으로 나타난 연구(김은희, 2002)와 긍정적인 부모양육태도가 아동의 대인문제해결 사고와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이선희, 2000)와 일치한다. 또한 부모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대인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연구결과(황광숙, 2006)와 부모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감정적, 회피적인 대처방식과 같은 부정적 대처방식을 사용한다는 기존연구(부영희, 2000)와도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는 적대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부모의 자녀들이 대인문제해결에 있어 소극적, 공격적 대처를 많이 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낙관성 역시 대인문제해결양식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대인문제해결양식의 하위요인인 주장적 양식과는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소극적, 공격적 양식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낙관성이 높은 청소년이 적응적 대처 전략을 많이 사용하며, 비관성이 높을수록 부적응적 대처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결과(신현숙, 2005)와 낙관적인 학생은 일반적인 학생에 비해 학교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교우관계와 학습과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가운데 보다 효과적인 해결방법을 동원하여 교우관계와 학습과제 등 그들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한다고 한 김동현(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부모양육태도와 대인문제해결양식 간의 관계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의 낙관성은 부모양육태도와 대인문제해결양식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부모양육태도가 대인문제해결양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낙관성을 통해서도 대인문제해결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이 경험적 자료에 잘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쟁모형인 완전매개모형과 비교하여 분석해 본 결과, 부분매개인 연구모형이 더 좋은 모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Sobel 검정(Sobel, 1982)을 통해 낙관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낙관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김미선(2009)은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자아수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낙관성에 의해 매개 되어 자녀의 자아수용성과 또래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조운경(2010)의 연구에서 낙관성은 모애착과 학교 적응간의 관계를 부분매개 한 것보다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 낙관성은 아동이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아동이 환경적 맥락 가운데 놓인 자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고 그에 따라 드러나는 행동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낙관성은 바람직한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데 주요한 아동의 개인내적인 변인인 것으로 고려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부모양육태도가 대인문제해결양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직접적인 영향도 있지만, 낙관성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영향도 간과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아동은 부모의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통해 낙관성을 형성하게 되고, 이렇게 형성된 낙관성은 아동들이 또래관계와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긍정적이며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는 아동의 대인문제해결 행동을 다루는데 있어 부모양육태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부모양육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상담적 개입을 해야하며, 나아가 낙관성을 증진 시키는 것이 효과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2. 결론 및 제언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는 아동의 낙관성 및 대인문제해결양식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

둘째, 부모양육태도는 아동의 대인문제해결 행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아동의 낙관성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대인문제해결양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의 대인문제해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양육

태도라는 부모-자녀관계 요인과 아동의 낙관성이라는 개인적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아동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특성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부모양육태도와 아동의 낙관성 및 대인문제해결양식 등 세 가지 변인을 모두 살펴본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가 부모양육태도가 아동의 대인문제해결 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 뿐 아니라 아동의 낙관성을 매개로하여 대인문제해결양식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력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는 기존의 부모양육태도와 대인문제해결 행동 간의 관계성을 보다 구조화시킴으로써 기존 선행연구를 확장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를 대인문제해결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부적응적 정서나 행동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내담자에게 실제적인 상담 장면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낙관성은 어린 시절에 형성되지만 학습이 가능하고 한번 숙달되면 스스로 유지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낙관성이 낮은 이에게도 낙관성 증진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기대감을 증진시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연구결과가 주는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이 제주 시내의 초등학생으로 한정되었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표집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들은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연구 대상자의 반응태도에 따라서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부모보고식 검사, 행동관찰, 면접 등 다양한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변인들 간의 관계 및 영향력만을 밝히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실증적 연구결과를 밝힐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연구나 질적 연구방법 등을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고연경(2011). 아버지의 성향적 낙관성이 자녀의 낙관성에 미치는 영향. 용문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지혜(2006).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설명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민(2010). 대학생의 낙관성과 행복추구경향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현(2006). 아동의 낙관성과 학습동기와의 관계.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선(2009).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자아수용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낙관성을 매개변인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2006). 낙관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인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수(2006). 어머니의 낙관성이 양육태도와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간의 관계에 미치는 효과. 영유아교육연구, 9, 145-170.
- 김순복(2007). 낙관성 향상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숙영(2010). 초등학생의 낙관성 및 비관성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희(2002).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른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행동.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수(2008). 청소년의 낙관성과 비관성이 심리적 적응 및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처와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인으로. 청소년학연구, 15, 271-299.
- 김정진(2010). 자존감과 친밀감의 관계에서 자기개방, 지각된 타인지지의 매개효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용, 이지연(2008). 아동의 성향적 낙관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아시아교육연구, 9, 83-106.

- 김향순(2007).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조절능력 및 친구 간 갈등해결 전략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숙(2005).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인관계문제 및 역기능적 신념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호숙(2005). **자기표현훈련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표현에 미치는 효과**.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현숙(2006). **낙관성과 스트레스지각이 갈등해결양식 및 이성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옥철(2004). **초등학생의 사회적 조망수용능력과 친구간 갈등해결 전략 관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영(2001). **대인간 문제 해결 관련 변인이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창진, 김성희(1980). **주장훈련 프로그램**. 경북대학교 학교생활연구소, **학생지도 연구**, 13(1), 51-85.
- 부영희(2000).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감정지수(EQ)가 또래애착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보운(2009). **초등학생의 사회적 갈등 장면에서의 사회적 문제해결 전략의 발달**. **초등교육연구**, 22, 199-222.
- 손승희(2001). **어머니 양육행동 및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과 또래 유능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우선(2008). **초등학생을 위한 학급단위 대인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은정, 홍혜영, 이은경(2009). **종교성과 안녕감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와 낙관성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2), 465-480.
- 송은주(2003). **아동의 심리적 가정환경과 대인문제해결사고와의 관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종화(2006).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의 입시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낙관성 및 비관이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정원(2002). **성향적 낙관주의와 기분상태가 만성 동통에 미치는 효과**. 강원

-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숙(2005). 청소년의 낙관성 및 비관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에서 대처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2(3) 165-192.
- 심봉황(2000).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성심, 이종승(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과의 관계. **행동과학 연구소 연구노우트**, 11(1), 1-15.
- 오영아, 정남운(201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걱정과의 관계: 경험적 회피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 23(3), 671-691.
- 오현미(2007). **행동하는 낙관주의자**. 서울: 비전과 리더쉽.
- 유성경, 조하나(2003). 낙관성 수준, 상황, 대상에 따른 대인관계 인식도식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3), 567-580.
- 이미란(2004). 부모-자녀 및 친구관계가 청소년의 자존감과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영(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행동통제 및 내외통제와 친구간 갈등해결 전략.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화(2007). 낙관성 증진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주관적 안녕감과 학교적응 유연성에 미치는 효과.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희(2000).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대인문제해결사고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옥순(2008). 불안정한 양육으로 인해 산만하고 불안한 행동을 보이는 한 부모 가정 아동의 놀이치료 사례. **놀이치료연구**, 12(2), 75-100.
- 이태현(2003). 또래갈등 상황에서 정인지체아동과 일반아동의 대인문제 해결 능력과 사회적 행동특성 비교.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학식, 임지훈(2007).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 6.0. 서울: 범문사.
- 이혜진(2002).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에 따른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효진(2010).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교사의 태도가 자기주도성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선화(1987). 자녀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개념 및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옥란(2006). 낙관성 증진 집단상담이 중학생의 낙관성, 대인관계 및 학교적응 유연성에 미치는 효과.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원식(1989). 현대교육심리학. 서울: 교육출판사.
- 조윤경(2010). 모애착과 학교적응의 관계: 낙관성을 매개변인으로.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하나(2003). 낙관성 수준에 따른 우호/적대상황에서의 대인관계도식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선영(2007). 연령에 따른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의 차이와 학령전기 아동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희(1993). 자기표현훈련 프로그램이 자기표현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양명(2010). 부모의 낙관성이 자녀의 낙관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유정(2007). 저소득가정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및 가족기능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유형.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선정기준과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7.
- 황광숙(2006). 자아방어기제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옥경(1997). 아동의 대인지각과 문제해결 행동 및 또래지위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sher, S. R., & Renshaw, P. D. (1981). Children without friends: Social knowledge and social skill training. In S. Asher & J. M. Gottman (Eds.).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friendships* (pp. 273-296).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M. L. Hoffman & L. W. Hoffman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pp. 169-208). New York: Russell Sage.
- Brewin, R. B. & Andrew, B. (1996). Intergenerational links and positive self-cognitions: Parental correlates of optimism, learned resource fullness, and self-evaluation. *Cognitive Therapy Research*, 20(3), 247-26.
- Brissette, I., Scheier, M. F., & Carver, C. S. (2002). The role of optimism in social network development, coping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during a life trans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102-111.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Helton, W. S., Dember, W. N., Warm, J. S., & Matthews, G. (2000). Optimism, pessimism and false failure feedback Effect on vigilance performance. *Current Psychology*, 18, 311-322.
- Greenberg, M. T., Siegel, J. M., & Leitch, C. J. (1983).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s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12, 373-86.
- Jahoda, M.(1953).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health. *Social Casework*, 34, 349-354.
- Marsh, D. T., Serafica, F. C., & Bareboim, C. (1980). Effect of perspective training on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Child Development*, 51, 140-145.
- Piaget, J. (1965). *The moral judgment of the child*. New York: Free. Press.
- Peterson, C., & Bossio, L. M. (1991). *Health and optimism*. New York: Free Press.
- Schaefer, E. S. (1965).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s and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 417-424.
- Scheier, M. F., & Carver, C. S. (1985). Optimism, Coping and health: Assessment and implications of generalized outcome expectancies. *Health Psychology*, 4, 219-247.

- Scheier, M. F., & Carver, C. S. (1992). Effects of optimism 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Theoretical overview and empirical Updat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6*, 201-228.
- Scheier, M, F., & Carver, C. S. (1993). On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 the benefits of being optimistic.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 26-30.
- Scheier, M, F., Carver, C. S., & Bridges, M. W. (1994). Distinguishing optimism from neuroticism(and trait anxiety, self-mastery, and self esteem: A reevaluation of the Life Orient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1063-1078.
- Seligman, M. E. P.(1991). *Learned optimism*. New York: Simon & Schuster.
- 박노용, 김혜성 공저(1996). *낙관성 훈련*. 서울: 오리진.
- Seligman, M. E. P.(1995). *The optimistic child*. Boston: Houghton Mifflin. 박주성 역(2000). *자녀에게 줄 최상의 선물은 낙관적인 인생관이다*. 서울: 오리진.
- Seligman, M. E. P. & Csikszentmihalyi, M. (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5*, 5-14.
- Selman, R. L. & Demorest, A. F. (1984). Observing troubled children's interpersonal negotiation strategies: Implication of and for a development model. *Child Development, 55*, 288-304.
- Spivack, G. & Shure, M. B. (1972). Means-ends Thinking, Adjustment, and Social Class among Elementary-school-aged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38*, 348-363.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pp. 290-312). San Francisco : Jossey-Bass.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 of Optimism on the Relation
between Children-Perceived Parental Rearing Attitude
and Interpersonal Problem-Solving Styles

Kim, Hea Sook

Department of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Song, Jae Hong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children-perceived parental rearing attitude, optimism and interpersonal problem-solving styles, an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optimism on the relation between children-perceived parental rearing attitude and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styles.

The research question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correlation between children-perceived parental rearing attitude, optimism and interpersonal problem-solving styles?

Second, how does child's optimism show the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among children-perceived parental rearing attitude and interpersonal problem-solving styles?

For this research, the survey was responded from 367 children who were randomly sampled in 4~6 year students of 3 elementary student schools in the Jeju City with regard to a grade and sex. The measuring instruments

were the following: Children-perceived Parental Rearing Attitude developed by Oh and Lee(1982) and adapted by Im(1987), the Children's Life Orientation Test developed by Kim and Lee(2008) and the Children's Interpersonal Problem-Solving Styles developed by Hwang(1997). The study results were analyzed based on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a survey with the SPSS 14.0 and Amos 5.0 program.

Based on the result of preceding studies, the children's perceived parental rearing attitude, the optimism, and the interpersonal problem-solving styles were selected as independent variables, a mediating variable and a dependent variables. Correlational analysis among children's perceived parental rearing attitude, optimism and interpersonal problem-solving styles is conducted, and Structural Equational Modeling(SEM) is used to validate mediating effects of optimism on the relation between children's perceived parental rearing attitude and interpersonal problem-solving styles. Lastly, Sobel's(1982) test was used to verify mediation effect of optimis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tudy suggested that were a significant correlation among of children-perceived parental rearing attitude, optimism and interpersonal problem-solving styles.

Second, as validation result of mediating effect of optimism on relation between children-perceived parental rearing attitude and interpersonal problem-solving styles, optimism mediates these, and the partial mediation is more suitable than complete mediation. Both children-perceived parental rearing attitude and interpersonal problem-solving styles had a significantly effect on optimism.

The findings of the study illustrated that children's perceived parental rearing attitude exerted a directly influence on interpersonal problem-solving styles, and that it not be able to overlook indirectly impact on interpersonal

problem-solving styles through optimism as well. These result imply that parents education and optimism progress programs should be considered for children's positive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Key Words : Children-Perceived Parental Rearing Attitude, Optimism, Interpersonal Problem-Solving Styles, Mediating Effect

부 록

<부록1> 설문지 안내문

<부록2> 부모양육태도 지각 척도

<부록3> 아동용 성향적 낙관성 척도

<부록4> 대인문제해결양식 척도

【 부록1 】 설문지 안내문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학생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느끼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시험이 아니므로 맞거나 틀린 답이 없고 누가 올바르게 생각하고 누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선생님이나 다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으며, 오직 여러분을 이해하고 돕기 위한 연구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모든 문항을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신다면 연구를 위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한 문항이라도 체크하지 않을 경우 자료의 가치가 없으므로 빈칸이 없도록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1년 5월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 전공 김 해 숙

※ 다음 내용 중에서 해당되는 번호에 √표하여 주십시오.

1. 나는 몇 학년입니까? ① 4학년 ② 5학년 ③ 6학년
2. 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3. 나와 부모님은?
① 함께 살고 있다 ② 아버지와 어머니 중 한분하고만 살고 있다 ③ 기타

【 부록2 】 부모양육태도 지각 척도

다음은 여러분이 부모님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생각을 나타내는 문장들입니다.
각 문장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를 해 주세요.

문 항	아 버 지				어 머 니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버지(어머니)는 나와 다정하게 자주 얘기한다.								
2.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혼자 살 수 있는 물건까지도 전부 사다 주신다.								
3. 아버지(어머니)는 공부에 필요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해 주신다.								
4. 내 친구들이 집에 찾아오면, 아버지(어머니)는 싫어하시는 편이다.								
5. 아버지(어머니)는 화가 날 때 식구들한테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있다.								
6. 아버지(어머니)는 “자기 일은 자기가 처리해야 한다 ” 고 말씀하실 때가 많다.								
7. 내가 모르는 것을 질문하면 아버지(어머니)는 “그것도 모르냐?”하고 핀잔을 주신다.								
8. 아버지(어머니)는 형제들을 야단치실 때 차별하는 일이 많다.								
9. 아버지(어머니)는 실수하여 일을 잘 못했을 경우라도 꾸짖기 보다는 애썼다고 격려해 주시는 편이다.								
10.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어머니)는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면 내게 맡겨 주신다.								
11. 아버지(어머니)는 위인들의 훌륭한 업적이나 성공한 사람의 얘기를 자주 들려주신다.								

문항	아 버 지				어 머 니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 아버지(어머니)는 기분이 나쁠 때에는 내 요구를 무조건 거절하시는 때가 많다.								
13. 아버지(어머니)는 가족들과 함께 오락회를 열거나 노래 부르기를 좋아 하신다.								
14. 아버지(어머니)는 나의 말과 행동에 별로 간섭하지 않는 편이다								
15. 아버지(어머니)는 새로운 일에 대해서 나와 함께 이야기하거나 생각하기를 좋아하신다.								
16. 아버지(어머니)는 처음에 허락하지 않다가도 내가 끈질기게 조르면 귀찮아서 하는 수 없이 허락해 버리신다.								
17. 아버지(어머니)는 내 말을 아주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18. 내 의견은 묻지도 않고 나에게 관한 일을 아버지(어머니)마음대로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다.								
19. 아버지(어머니)는 하던 일은 끝까지 마쳐야 한다고 자주 말씀하신다.								
20. 손님이 오셨을 때와 보통 때에 나에게 대한 아버지(어머니)의 태도는 다를 때가 많다.								
21. 아버지(어머니)는 나와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을 거의 알고 계신다.								
22. 아버지(어머니)는 나의 일은 스스로 직접 결정하도록 맡겨 주시는 편이다.								
23. 아버지(어머니)는 모든 일에 열심히 하라고 자주 말씀하신다.								

문항	아 버 지				어 머 니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24. 아버지(어머니)는 기분이 좋을 때는 잘해 주시다가 기분이 나쁘면 뚜렷한 이유 없이 야단치시곤 한다.								
25. 내가 질문을 하면 아버지(어머니)는 아시는 데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려고 애쓰신다.								
26.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할 때가 많다.								
27. 내가 어떤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생겨 그 일에 열중해 있으면 아버지(어머니)는 엉뚱한 짓을 한다고 나무랄 때가 많다.								
28. 아버지(어머니)는 내게 별을 줄 때 대개 그 이유 설명해 주신다.								
29.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 아버지(어머니)는 관심을 갖고 들어 주신다.								
30. 우리 집에서는 무슨 일을 하던 간에 미리 아버지(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1. 아버지(어머니)는 새로운 일이나 여행은 위험하다고 못하게 하신다.								
32. 아버지(어머니)는 비록 어린이의 말이라도 이치에 맞는 말은 존중해 주는 편이다.								
33. 내가 무엇을 해달라고 하면, 아버지(어머니)는 우선 화부터 내시는 편이다.								
34.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은 거의 허락해 주시는 편이다.								
35.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원하신다.								

문항	아 버 지				어 머 니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36. 아버지(어머니)는 잘못하게 된 원인이나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가지고 꾸중할 때가 많다.								
37. 아버지(어머니)는 나에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								
38. 아버지(어머니)는 공부나 집안일을 돕는 것 등은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맡기신다.								
39. 아버지(어머니)는 내 능력이나 힘에 좀 벅찬 일이라도, 나에게 해보라고 권장하시는 경우가 많다.								
40. 아버지(어머니)는 가끔 적당하지 못한 명령을 무조건 그대로 따르라고 하시는 일이 많다.								

【 부록 3 】 아동용 성향적 낙관성 척도

다음은 여러분이 얼마나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평소 생각이나 행동에 가장 가까운 곳에 솔직하게 √ 표를 해 주세요.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미래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				
2	전체적으로 나는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 기대하는 편이다.				
3	내 생각대로 되는 건 별로 없다.				
4	내게는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5	나에게는 주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6	친구가 더 많아질 것이다.				
7	좋은 일이 생기면 좀 있다가 꼭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다.				
8	난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다.				
9	게임을 좋아한다.				
10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11	난 운이 좋은 사람이다				
12	내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 부록 4 】 대인문제해결양식 척도

이 질문지는 여러분의 친구들과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다음 각 문제에 나타난 상황들이 실제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상상하고 3가지 응답 내용 중 여러분이 하게 될 행동과 가장 비슷한 답을 한 가지만 골라 번호에 √표 하세요.

1. 아이들이 두 편으로 나누어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나도 끼워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미 인원이 찼기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한다. 이럴 때 나는?

- ① 다른 편 1명을 더 데리고 올 테니 함께 게임을 하자고 할 것이다.
- ② 그 아이들이 나중에 사람이 더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기다려 보겠다.
- ③ 어떻게 해서든지 게임을 같이 할 것이다.

2. 점심급식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데 다른 애가 내 앞으로 끼어들었다. 이럴 때 나는?

- ①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 아이를 뒤로 밀어 내겠다.
- ② 그 애가 내 앞자리에 서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 ③ 내가 그 자리에 먼저 서 있었다고 말할 것이다.

3. 나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다른 아이하고만 어울려서 몹시 속상하고 슬프다. 이럴 때 나는?

- ① 내가 그 친구를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 지를 말해 주고 화해하겠다.
- ② 그 친구한테 가서 의리도 없는 나쁜 아이 라고 말해 주겠다.
- ③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와 사이가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기다려 보겠다.

4. 어느 날 친구들과 두 편으로 나누어 아주 재미있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집에 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조금만 더 하자고 한다. 이럴 때 나는?

- ① 나대신 게임을 할 수 있는 아이를 찾아 주겠다.
- ② 집에 꼭 가야 하는데 왜 집에 못가게 하느냐고 화를 낼 것이다.
- ③ 나는 슬며시 그 게임에서 빠져 나와 집에 갈 것이다.

5. 아침에 엄마에게 꾸중을 듣고 학교에 와서 몹시 속상하고 슬펐다. 이럴 때 나는?

- ① 나는 학교에 와서 다른 아이에게 화풀이 할 것이다.

- ② 내 이야기를 들어 줄 수 있는 아이한테 그 일에 대해 말해 보겠다.
- ③ 내 문제로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기 싫기 때문에 가만히 있겠다.

6.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나도 타고 싶었으나 자전거를 집에 놓고 왔기 때문에 탈 수가 없었다. 이럴 때 나는?

- ① 자전거를 타는 대신에 다른 놀이를 하겠다.
- ② 아이들이 자전거 타는 것을 방해하겠다.
- ③ 나는 친구들에게 자전거를 빌려 달라고 하여 타보겠다.

7. 친한 친구와 운동장에 있었는데 다른 아이가 다가와서 내 친구를 놀렸다. 이럴 때 나는?

- ① 슬며시 그 자리를 피할 것이다.
- ② 내 친구를 놀리는 그 아이에게 덤비거나 욕을 해 주겠다.
- ③ 그 아이에게 다른 아이들을 놀리면 안 된다고 말해주겠다.

8. 반에서 친구들과 토론을 하는 시간에 나와 내 친구들은 의견이 서로 달랐다. 나는 내 의견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럴 때 나는?

- ① 친구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내 생각을 자세히 설명하겠다.
- ② 친구들이 내 의견에는 별로 관심이 없을 테니까 아무 말 하지 않겠다.
- ③ 내가 옳고 친구들이 틀렸다고 큰소리로 우기겠다.

9. 학급 아이들이 과제를 하고 있었다. 이제 나는 한 가지만 더 하면 다 끝난다. 그런데 내가 필요한 것을 마침 다른 아이가 갖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럴 때 나는?

- ① 그 아이가 보고 있지 않을 때 그것을 가져 오겠다.
- ② 그것 대신 그냥 다른 것을 사용하겠다.
- ③ 그 아이한테 가서 내가 그것을 쓸 수 있는 지를 물어 보겠다.

10. 쉬는 시간에 친구와 함께 놀기로 약속했는데 그 친구가 다른 애들과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럴 때 나는?

- ① 그냥 혼자 놀겠다.
- ② 가서 나도 함께 어울려 놀겠다.
- ③ 친구에게 너는 약속을 안 지키는 나쁜 아이라고 말하겠다.

11. 과학관에 천체 망원경을 보려고 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내 앞의 아이가 너무 오랫동안 보고 있어서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짜증이 났다. 이럴 때 나는?

- ① 혼자서만 그렇게 오래보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하고 그 아이를 뒤로 밀어내고 내가 보겠다.
- ②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다음 사람에게 차례를 넘겨주어야 한다고 말해준다.
- ③ 그냥 그 아이가 다 볼 때까지 기다리겠다.

12. 몇몇 친구들이 방과 후에 만나는 특별한 모임을 만들었다. 나도 그 모임에 들어가고 싶지만 그 아이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다. 이럴 때 나는?

- ① 나도 그 모임에 들어 갈 수 있는 지를 물어 보겠다.
- ② 아이들이 허락하지 않든지 간에 그 모임에 한번 가 볼 것이다.
- ③ 방과 후에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아 볼 것이다.

13. 아이들과 놀고 있는데 그 중 몇 명이 내 별명을 부르며 나를 놀리기 시작하였다. 이럴 때 나는?

- ① 나를 왜 놀리느냐고 화를 내고 계속해서 놀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겠다.
- ② 그 아이들과 더 이상 놀지 않고 같이 놀 다른 아이를 찾아보겠다.
- ③ 별명을 부르며 나를 놀리지 말라고 말하겠다.

14. 운동장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축구공이 날라 와 내 머리에 맞아서 몹시 아팠다. 이럴 때 나는?

- ① 기분 나쁘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가겠다.
- ② 그 아이들한테 가서 사람이 지나갈 때는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해 준다.
- ③ 왜 가만히 지나가는 사람을 건드리느냐고 따지고 덤비겠다.

15. 반 친구의 생일 파티에 학급의 모든 친구들이 초대되었다. 만약 내가 빠져 있었다면 나는?

- ① 친구들이 다 가는데 왜 나는 초대장을 받지 못했는지 그 아이에게 물어본다.
- ② 나만 빼놓은 것이 기분 나빠 그 아이를 더 이상 친구로 생각하지 않겠다.
- ③ 그냥 아무 말 하지 않는다.

16. 친구가 학용품을 빌려갔는데 되돌려 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어느 날 내가 그 학용품이 꼭 필요하게 되었다면 이럴 때 나는?

- ① 그 아이한테 가서 내가 필요하니 그 학用品을 이제 돌려 달라고 하겠다.
- ② 다른 사람 물건을 맘대로 그렇게 오래 쓰면 어떻게 하느냐고 화를 낼 것이다.
- ③ 필요하긴 하지만 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17. 친구가 나한테 학교 담장에 올라 갈 수 있느냐고 물으면서 그것도 못하면 겁쟁이라고 하였다. 나는 겁이 나기도 하고 그것을 꼭 해야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다. 이럴 때 나는?

- ① 나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냥 담장에 오를 것이다.
- ② 담장에 오르고 싶지 않다고 그 아이에게 말할 것이다.
- ③ 나는 왜 나를 겁쟁이라고 부르느냐하고 소리치며 화를 낼 것이다.

18. 학급에서 조별로 연극을 하는데 조장이 정말로 하기 어려운 역할을 나에게 맡겼다. 이럴 때 나는?

- ① 왜 나한테는 어려운 역할만 맡기느냐고 화를 내고 연극을 하지 않을 것이다.
- ② 나보다 그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는 아이와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본다.
- ③ 다른 핑계를 대고 연극에서 빠질 것이다.

19. 나만 아는 새로운 사실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정말로 말하고 싶다. 이럴 때 나는?

- ① 친한 친구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겠다.
- ② 다른 아이들이 샘이 나도록 한 친구에게 큰소리로 말할 것이다.
- ③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을 테니까 계속해서 혼자만 알고 있을 것이다

20. 잠시 동안만 갖고 놀겠다고 하면서 내 공을 빌려간 아이들이 내가 친구들과 공놀이를 하려고 돌려 달라고 해도 돌려주지 않는다. 이럴 때 나는?

- ① 같이 놀려고 한 친구들에게 공을 다른 곳에서 빌려 보라고 하겠다.
- ② 공을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아 내 친구들과 놀이 하겠다.
- ③ 나도 다른 아이들과 공놀이를 해야 하나까 이제 공을 돌려 줘야 하지 않느냐고 하겠다.

감사의 글

오늘은 그동안 계속된 장마도 잠시 멈추고 파란 하늘과 한라산 증퍽을 감싼 하얀 뭉게구름이 마치 그동안 수고한 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합니다. 돌아보면 순간순간이 감사하고 뜻 깊은 시간이었지만 논문작성하면서 고달팠던 많은 시간들... 지금은 그 힘겨웠던 시간들이 어느새 아련한 추억으로 다가오고 제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던 고마우신 분들이 떠오릅니다.

늦은 나이에 불구하고 대학원의 길로 인도해주시고 힘들 때 마다 용기와 힘을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용기를 내어 내디딘 한 걸음이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송재홍 교수님의 지도와 질책, 격려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어휘 하나 하나의 의미에서부터 참고문헌의 맞춤법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조언과 수정을 해주신 교수님의 자상한 배려는 저에게 소중한 귀감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낙관성이라는 좋은 주제를 알려주셔서 논문 작성하는 동안 어려울 때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것 또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석사연구 수업을 통하여 특정 표본수집 대상에 있어서 문제점을 일찍 깨닫게 해주셔서 많은 고생을 덜게 해주시고 부족한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격려해주신 김양순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구방법론 수업을 통하여 자신감을 불어넣어주시고 논문심사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세심한 지도를 해주신 김효심 교수님의 사랑에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설문지를 돌리는데 도움을 주신 강수선, 정선아, 문혜경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멀리, 가까이서 늘 격려해주고 지지해준 친구 선희와 정숙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우리 언니, 누나 대단하다고 늘 관심과 용기를 주었던 든든한 후원자 사랑하는 동생들 고맙습니다.

저마다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대학원 1기동기 선생님들과 함께 한 소중한 만남과 임꾸회 가족 여러분의 격려에도 감사드리며, 논문통계에서 어려움이 있어 네이버 지식iN에 질문하였을 때 친절하게 답변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듯 오늘의 이 기쁨은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논문을 계기로 더욱 겸손한 자세로 새로운 출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맙고 사랑합니다.

2012. 7. 23.

김해숙